



## 美, 癌사망을 중 폐암이 으뜸

폐암이 여전히 미국에서 癌에 의한 사망률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癌협회와 최근 추계에 의하면 90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폐암이 50여명으로 가장 많고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은 10명미만, 결장암과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20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자의 경우 폐암의 신규 발생건이 90년 10만2천건에서 91년 10만1천건으로 평행선을 유지한 반면 여성은 80년 3만2천건에서 91년 6만6천건으로 두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92년에 16만8천명의 폐암환자가 새로 생기고 14만6천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87년 이래 폐암으로 죽는 여성이 유방암으로 죽는 여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 40년동안 유방암은 여성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폐암의 경우 끊임없는 기침, 피가 섞인 가래, 만성기관지염, 가슴의 통증과 반복되는 폐렴의 경고증상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잘 나타나

지 않으며 폐암의 식별시기와 관계없이 환자가 5년동안 생존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 저혈압, 정신질환 유발

저혈압은 만성피로와 현기증, 권태, 두통 등을 초래할 뿐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 초조,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과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홍콩의 明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만성적인 피로감과 현기증, 두통 및 말할 때 우는 듯한 소리를 내는 증상이 있으면 대개 저혈압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사소한 일에도 잘 울고 불면증이 심한 증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수축혈압이 1백5mm 이하이면 저혈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저혈압이 발견될 경우 즉각 약물치료를 받아 혈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혈압이 권태, 초조, 우울증, 불안, 신경증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 당뇨환자 야간음주 위험

당뇨병 환자는 특히 야간의 음주를 삼가야 한다. 저녁 나절의 음주는 다음날 아침, 위험한 저혈당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함부르크-만하임 예방의학 연구소는 최근 바트라우텐베르크 대사질환 클리닉 연구팀이 인슐린 치료를 요하는 남성 당뇨병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환자에게 3일간에 걸쳐 첫날은 1ℓ의 다이어트용 맥주, 둘째날은 같은 양의 미네랄워터, 셋째날 저녁에는 5백cc의 다이어트맥주를 마시게 한 결과 맥주를 마신 경우에는 음주량에 관계없이 다음날 아침 심한 저혈당 증세가 관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측은 당뇨병환자들에게 특히 야간 음주를 삼가도록 당부했다.

## 유럽인, 간접흡연으로

### 年14만명 사망

유럽에서는 해마다 약 14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따른 심장병과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비흡연자들의 권리압력단체 협회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는, 담배연기 공

해는 이제 비흡연자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환경 공해로서, 집단 발암물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간접흡연으로 해마다 유럽에서 사망하는 약 13만9천여명 가운데 독일에서는 1만5천여명, 이탈리아 1만1천여명, 프랑스 1만9백여명 등의 성인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위의 수치에서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태아·신생아·유아 등의 사망수는 성인에 비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비흡연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흡연자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알리는 담배갑 경고문은 흡연이 비흡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